

韩国

现代文学作品选

▼ 21世纪韩国语专业系列教材

丛书主编 姜银国

尹允镇 池水涌 权赫律 编著

上海交通大学出版社



责任编辑 / 姜宝有
封面设计 / 曦 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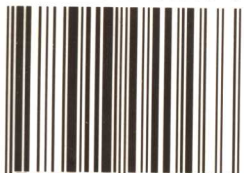
www.jiaodapress.com.cn
bookinfo@sjtu.edu.cn

现代文学作品选
韩国
21世纪韩国专业系列教材

尹克信 崔永海 权律 编著
丛书主编 王治田



ISBN 7-313-04046-6



9 787313 040466 >

定价:39.00元

21 世纪韩国语专业系列教材——

韩国现代文学作品选

한국현대문학작품선

尹允镇 池水涌 权赫律 编著

上海交通大学出版社

内 容 提 要

《韩国现代文学作品选》是“21 世纪韩国语专业系列教材”之一。本书选取现代韩国语文学领域中 36 位代表作家的代表作品或节选。每篇作品选读后提供作者及背景介绍、思考练习题及文学常识。本书可作为韩国语专业高年级文学课教学用书,也可供社会上具有相当韩国语基础的文学爱好者作进修读物。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现代文学作品选/尹允镇等编著. —上海:上海交通大学出版社,2005

(21 世纪韩国语专业系列教材)

ISBN 7-313-04046-6

I. 韩... II. 尹... III. 现代文学-作品-韩国-高等学校-教材 IV. I312.61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5)第 059290 号

韩国现代文学作品选

尹允镇 池水涌 权赫律 编著

上海交通大学出版社出版发行

(上海市番禺路 877 号 邮政编码 200030)

电话:64071208 出版人:张天蔚

上海颀辉印刷厂 印刷 全国新华书店经销

开本:787mm×960mm 1/16 印张:28.25 字数:529 千字

2005 年 9 月第 1 版 2005 年 9 月第 1 次印刷

印数:1—3 050

ISBN 7-313-04046-6/I·023 定价:39.00 元

版权所有 侵权必究

21 世纪韩国语系列教材编写委员会名单

主任委员：姜银国

委 员：（按姓氏笔划排序）

丁风熙 太平武 尹允镇

文英子 安炳浩 张光军

李龙海 单体瑞 金炳运

姜宝有 徐永彬 崔顺姬

廉光虎

特约编审：金东勋

总 序

改革开放以来，尤其是中韩建交以后，中国的韩国语教育以惊人的速度取得了长足的发展。我国的韩国语教育虽说有 50 多年的历史，但中韩建交之前的 40 余年间，只有 4 所大学开设了韩国语学科。而现在，已经有 40 多所大学开设了韩国语学科，并呈现出继续增长的趋势。

但是由于种种原因，中国的韩国语教育依然面临着许多需要解决的课题和问题。其中亟待解决的课题就是研究和开发符合中国的韩国语教育特点的教材。

中国的韩国语教育与世界其他国家的韩国语教育相比有很多不同的特点，最为显著的不同点在于教育类型上区别于包括韩国在内的世界其他国家。中国的韩国语教育以正规教育尤其是学位教育为主；而韩国则以非正规教育即单纯的语言进修为主；在美国、日本、俄罗斯等世界其他主要国家，韩国语教育更多的是作为公选课或者第二外语课程，而不是作为专业课。这一区别彰显出为中国的韩国语教育而研究开发的教材在本质上不同于韩国及世界其他地区。尽管如此，目前在中国除了极少数几所大学之外，几乎所有的大学都只能照搬使用韩国开发的教材。在这种情况下，教育目标的实现就比较困难。

有鉴于这种现状，复旦大学、吉林大学、延边大学、中央民族大学、对外经济贸易大学、北京语言文化大学、天津外国语学院、洛阳解放军外国语学院、中国海洋大学、青岛大学、烟台大学、山东大学威海分校、及山东纺织职业学院、上海工商外语学院等 14 所大学于 2004 年 7 月共同组成了韩国语系列教材编写委员会，决定研究开发能最大程度地体现中国韩国语教育的特点，符合新的教育环境，适应地域性特点，满足社会及学习者要求的一套全新的韩国语系列教材。

在这样的总体指导思想之下，我们在这次出版的新教材里，特别注重体现以下教材编写的基本原则：第一，开发培养复合型人才为目标的，听、说、读、写、译结合为一体的系列教材；第二，开发在教师的指导下，学习者能够自己主导学习的教材；第三，开发能够使知识和能力得到均衡提高的教材；第四，开发语言教育与文化教育能够有机结合的教材；第五，开发能够最大程度地活用实际语料的教材。

韩国语系列教材的研究和开发是一项需要大量人力和物力的庞大工程，需要大量的研究成果，但由于时间紧，水平有限，此次出版的教材中一定存在许多问题和不足之处，恳请广大专家学者和读者批评指正，以期开发出更趋完善的韩国语系列教材。

最后，这套系列教材的出版发行得到了上海交通大学出版社各级领导和同志们的大力支持，在此谨向他们致以由衷的谢意。

21 世纪韩国语系列教材编写委员会
2005 年 3 月

머 리 말

중한(中韓) 수교가 이루어진지 어느덧 13 년이 된다. 그 사이 40 여개 대학교들에서 한국어학과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수교 당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갈 줄은 누구도 예측치 못했을 것이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열은 한류열풍과 함께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만이 아닌, 중한 문화교류와 협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복합형 고급인재 양성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가 수요 하는 인재는 곧 한국을 알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면서 향후 중한 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고급인재들이다. 본 《한국현대문학작품선》은 이러한 복합형 인재양성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다.

본 교재를 위하여 우리는 고심 끝에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할만한 작품 36 편을 선별하였다. 이밖에도 소개하고 싶은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있으나 지면 제한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여긴다.

본 교재는 대학생용으로, 주로 한국어과 3 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사용기간은 3 학기로 정했다. “한국문학선독” 과목이 3 학기가 미달되는 학교에서는 사용 시 자기 실정에 맞추어 적당히 조절 할 수도 있다. 본 교재는 “한국어열독”과의 계속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어도 익히고 한국문학의 사(史)적인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꾀하기도 하였다. 작품의 배열순은 작가의 문단 등장순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단 일부 작품들은 발표연대가 등단순과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 1 부(1~26)에서는 소설작품을, 제 2 부(27~36)에서는 시작품을 배열하였다. 작품의 원문은 원상 보존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대 표기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으리라 여기면서 담당 교수의 강의 시 해

석에 맡기기로 하였다. 혹 사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기탄없는 조언을 바라며 앞으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시 보완키로 한다.

본 교재는 윤윤진, 지수용, 권혁불이 분담 편집하였고 편찬 후, 윤윤진이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일부 수정을 가했다.

본 교재의 편찬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경북대학교 이주형 교수의 아낌없는 도움과 조언을 받았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교재의 출판을 맡아준 상해교통대학교출판사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윤윤진

2005년 2월 9일

차 레

제 1 부 소설

少年의悲哀.....	이광수	(3)
배따라기.....	김동인	(17)
화수분.....	전영택	(33)
조그만 일.....	염상섭	(44)
운수 좋은 날.....	현진건	(63)
물레방아.....	나도향	(76)
탈출기.....	최서해	(92)
새 거지.....	조명희	(103)
흙의 세레.....	이익상	(114)
도시의 유령.....	이효석	(130)
원고료 이 백원.....	강경애	(145)
백치 아다다.....	계용묵	(154)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169)
동백꽃.....	김유정	(191)
바 위.....	김동리	(200)
논 이야기.....	채만식	(210)
소나기.....	황순원	(230)
비오는 날.....	손창섭	(241)
제 3 인간형.....	안수길	(255)
수난이대(受難二代).....	하근찬	(283)
도망자.....	김용성	(296)

우상의 눈물.....	전상국 (312)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338)
눈 길.....	이청준 (357)
삼포(森浦) 가는 길.....	황석영 (380)
저문 날의 삽화.....	박완서 (400)

제 2 부 시

진달래꽃.....	김소월 (419)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421)
북청 물장사.....	김동환 (423)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426)
鄉愁.....	정지용 (428)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 (430)
광야(曠野).....	이육사 (433)
나그네.....	박목월 (435)
국화 옆에서.....	서정주 (437)
序詩.....	윤동주 (439)



제 1 부

소 설

少年的悲哀

이광수

1

蘭秀는 사랑스럽고 얌전하고 才操 있는 處女라. 그 從兄 되는 文浩는 여러 從妹들을 다 사랑하는 中에도 特別히 蘭秀를 사랑한다. 文浩는 이제 十八歲 되는 시골 어느 中等程度學生인 靑年이나, 그는 아직 靑年이라고 부르기를 싫어하고 少年이라고 自稱한다. 그는 感情的이요, 多血質인 才操 있는 少年으로 學校成績도 每樣 一, 二號를 다투었다. 그는 아직 女子라는 것을 모르고 그가 交際하는 女子는 오직 從妹들과 其他 四, 五人되는 族妹들이다. 그는 天性이 女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父親보다도 母親을, 叔父보다도 叔母께, 兄弟보다도 姉妹께 特別한 愛情을 가진다. 그는 自己가 自由로 交際할 수 있는 모든 姉妹들을 다 사랑한다. 그 中에도 自己와 年歲가 相適하거나 惑 自己보다 以下되는 妹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 中에도 그 從妹中에 하나인 蘭秀를 더욱 사랑한다. 文浩는 뉘 집에 가서 오래 앉았지 못하는 性急한 버릇이 있건마는 姉妹들과 같이 앉았으면 歲月가는 줄을 모른다. 그는 姉妹들에게 學校에서 들은 바, 또는 書籍에서 읽은 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여 姉妹들을 웃기기를 좋아하고 姉妹들도 또한 文浩를 왜 그런지 모르게 사랑한다. 그러므로 文浩가 집에 온 줄을 알면 洞中の 姉妹들이 다 會集하고, 惑은 文浩가 간 집 姉妹가 一同을 請하기도 한다. 土曜日 午後나 日曜日午前에는 依例히 文浩가 本村에 돌아오고 本村에 돌아오면 依例히 洞中 姉妹들이 쏠어 모인다. 惑 文浩가 좀 오는 것이 늦으면 姉妹들은 모여 앉아서 하품을 하여가며 文浩의 오기를 기다리고, 惑 그 中에 어린 누이들——假令 蘭秀 같은 것은 앞 고개에 나가서 望을 보다가 저편 버드나무 그늘로 검은 風衣에 學生帽을 갖혀 쓰고 뿔뿔 활개 치며 오는 文浩를 보면 너무 기뻐서 돌에 발부리를 채며 뛰어 내려와 一同에게 文浩가 저 고개 너머 오더라는 消息을 傳한다. 그러면

會集한 一同은 갑자기 喜色이 나고 몸이 들먹거려 惑,

“어디까지 왔더니?”

하는 者도 있고 惑,

“저 고개턱까지 왔더니?”

하는 者도 있고, 惑 蘭秀의 말을 信用치 아니하여,

“저것이 또 거짓말을 하는 게지.”

하고 눈을 흘겨 蘭秀를 보는 자도 있다. 學校에 特別한 일이 있거나 試驗때가 되어 文浩가 惑 아니 올 때에는 蘭秀가 고개에서 望을 보다가 거짓 報道를 한 적도 한두 번 있는 까닭이다.

이러할 때에 姉妹들은 大門밖에 나섰다가 웃으며 마주 오는 文浩를 반갑게 맞는다. 어린 누이들은 惑 손도 잡고 매달리고, 惑 어깨에 올려 업히기도 하고, 惑 가슴에 와 안기기도 하며, 좀 낫살 먹은 누이들은 얼른 文浩의 손을 만지고 물려서기도 하고, 조금 文浩의 옷을 당기어 보기도 하고, 惑 마주보고 빙긋이 웃기만 하기도 한다. 蘭秀도 昨年까지는 文浩의 손에 매달리더니 今年부터 조금 손을 잡아 보고 얼굴이 빨개지며 물려서게 되고 昨年까지 文浩의 가슴에 안기던 蓮秀라는 蘭秀의 同生이 손을 잡고 매달리게 된다. 그리고는 文浩의 집에 몰려들어가 文浩의 母親께 매달리며 어리광을 부린다. 文浩는 中央에 웃으며 앉고, 一同은 文浩의 周圍에 돌아앉는다. 그러나 그네와 文浩와의 자리의 距離는 年齡에 正比例한다. 第一 나 많은 누이가 第一 멀리 앉고 第一 나 어린 누이가 第一 가까이 앉거나 惑 文浩의 무릎에 기대기도 하고 文浩의 어깨에 걸어 엮디기도 한다. 文浩는 이런 줄을 안다. 그리고 슬퍼한다. 以前에는 서로 안고 손을 잡고 하던 누이들이 次次次次 가까이 안기를 그치고 손을 잡기를 그치고 彼此의 사이에 漸漸 多少히 距離가 생기는 것을 보고 文浩는 슬퍼하였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나 自然히 悲感한 생각이 남을 禁하지 못하였다.

四十이 넘은 文浩의 어머니는 그 어린 姪女들을 잘 사랑하였다. 그는 門中에도 賢淑하기로 有名하거나와 文浩에게는 模範의 夫人과 같이 보인다. 文浩도 自己가 아는 婦人들 中에 그 母親과 그 叔母(蘭秀의 母親)를 가장 愛敬한다. 도리어 그 母親보다는 叔母를 더욱 愛敬한다. 그래서 四, 五歲적에는 꼭 叔母의 곁에 자려 하였다. 한 번은 그 母親이

“文浩는 나보다도 同輩를 더 따라!”

하고 猜忌 비슷하게 歎息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只今은 文浩는 母親과 叔母를 거의 平等하게 愛敬한다. 그러나 親누이 되는 芝秀보다도 從妹인 蘭秀를 더 사랑하였다.

文浩의 從弟 文海도 文浩와 莫兄莫弟한 快活한 少年이다. 從弟라 하건만 文海는 文浩보다 二十餘日을 떨어져 났을 뿐이라, 容貌나 舉動이 別로 다른은 없었다. 그러나 文海는 그 母親의 性格을 받아 文浩보다 좀 冷靜하고 理智的이라. 文浩는 文海를 사랑하건만 文海는 文浩의 感情的인 것을 싫어하였다. 그러므로 文浩가 姉妹들 속에 섞여 노는 것을 恒常 嘲笑하고 姉妹들이 文浩에게 醉하는 것을 말은 못하면서도 恒常 不滿히 여졌다. 그러므로 文海는 姉妹界에 一種의 尊敬은 받으나 親愛는 받지 못하였다. 文海는 姉妹들이 自己를 畏敬함으로 自己의 醜지 아니함을 자랑으로 삼고 文浩에 比하여 人格이 一層 위인 것으로 自滿하였다. 文浩도 文海의 자기에게 對한 感情을 아주 모름은 아니나 이는 文海가 아직 自己를 理解하기에 너무 幼稚한 것이라 하여 그리 掛念치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從兄弟間에 年齡의 漸長함을 따라 性格의 差異가 生하면서도 兩人間에는 如前히 따듯한 愛情이 있었다. 勿論 文浩가 恒常 文海를 더 사랑하고 文海는 文浩에게 對하여 가끔 反感도 일으키건마는.

2

文浩가 집에 돌아오면 文浩의 母親은 惑 먹도 하고 닭도 잡아 文浩를 먹인다. 그러할 때에는 반드시 文海와 文浩를 따르는 여러 姉妹들도 함께 먹인다. 母親은 아랫목에 앉고 文浩와 文海는 윗목에서 兼床하고 姉妹들은 母親을 中心으로 하고 左右에 갈라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惑 먹을 것을 서로 빼앗고 감추기도 하면서 방안이 떠들썩하도록 떠들며 먹는다. 文浩의 父親은 문밖에서,

“왜 이리 떠드느냐?”

하면 一同은 갑자기 말소리를 그치고 어깨를 움추리다가

“장꾼 보이듯 했구나.”

하고 빙긋이 웃고 나가면 如前히 떠들기를 始作한다. 이것을 보고 文浩는 더할 수 없이 기뻐하건마는 文海는 양미간을 찌푸린다. 그러할 때에는 蘭秀도 웃고 지껄이기를 그치고 걱정스러운 듯이, 원망스러운 듯이 文海의 눈을 본다. 그러다가도 文浩의 웃는 얼굴을 보면 또 웃는다. 이러다가 食後가 되면 文浩와 文海는 윗간에 올라가서 무슨 討論을 한다.

그네의 討論하는 話題는 흔히 中國과 西洋의 偉人에 關한 것이라. 여기도 두 사람의 性格의 差異가 드러난다. 文浩는 李白、王昌齡 같은

中國詩人이나 톨스토이, 沙翁, 괴테 같은 西洋詩人을 稱讚하되, 文海는 그러한 詩人은 대개 人生에 無益한 懶惰者라고 罵倒하고 孔孟朱子라든가 西洋이면 소크라테스, 와싱턴 같은 사람을 讚頌한다. 兩人이 다 어떤 意味로 보아 文學에 뜻이 있는 것은 共通이었다. 그러나 文浩가 美的, 情的文學을 愛함에 反하여, 文海는 知的, 善的文學을 愛한다. 卽 文海는 文學을 社會를 敎化하는 一方便으로 여기되, 文浩는 꽤 分明하게 藝術至上主義를 理解한다.

그러므로 文浩는 文海를 幼稚하다 하고, 文海는 文浩를 放蕩하다 한다. 이러한 討論을 할 때에는 姉妹들은 自己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한다. 實로 此洞中에 兩人의 談話를 알아듣는 사람은 兩人外에 없다. 父母들도 이제는 兩人의 知識이 자기네들보다 勝한 줄을 속으로는 認定한다. 더구나 姉妹들은 오직 國文小說을 읽을 뿐이다. 元來 文浩의 堂內는 집이 富饒하고 또 대대로 文翰家라. 昔日에는 女子들도 대개는 四書와 小學, 烈女傳, 內則 같은 것을 읽더니 三、四十年來로 漸次 學風이 衰하여 近來에는 國文조차 不能解하는 女子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文浩와 文海는 天生 文學을 좋아하여 그 姉妹들에게 國文을 가르치고 또 國文小說 읽기를 勸獎하였다.

三、四年前에 文浩가 그 姉妹들을 爲하여 小說 一篇을 作하고 翌年에 文海가 또 小說 一篇을 作하였다. 그러나 姉妹間에는 文浩의 小說이 더욱 歡迎되었고 文海도 自己의 小說보다 文浩의 小說을 推獎하여 自己 손으로 좋은 종이에다가 文浩의 小說을 베끼고 그 表紙에 “金文浩著, 從弟 文海書”라 하고 뚜렷하게 썼다. 文浩의 父親도 이것을 보고 兩人의 情誼의 親密함을 讚歎하고 또 그 아들의 손으로 된 小說을 一讀하였다.

“이런 것을 쓰면 사람을 버리느니라.”

하고 책망은 하면서도 十五歲 된 文浩의 재주를 속으로 기뻐하기는 하였다. 그리고 科擧制度가 廢하지 아니하였던들 文浩와 文海는 반드시 大科에 壯元及第를 할 것인데 하고 아깝게 여겼다.

3

文浩는 蘭秀를 詩人의 資質이 있다고 믿는다. 재미있는 노래나 시를 읽어 주면 蘭秀는 손으로 두 볼을 지며 좋아하고 또 卽時 그것을 暗誦하며 幼稚하나마 批評도 한다. 文浩는 이것을 기뻐하여 집에 돌아올 때마다 반드시 새로운 노래나 詩나 短篇小說을 지어가지고 온다. 蘭秀도 文浩가